

2025 집단교섭, 투쟁으로 진전



8.14(목) 14시 대한솔루션 포승공장에서 11차 집단교섭이 열렸다. 사용자는 10개사 19명, 조합은 12개 사업장 55명이 참가했다.

마무리 할 각오

사용자대표 디와이피 공충국 이사는 “마무리할 각오로 왔다”며 짧게 인사했다. 이규선 경기지부장은 “폭우에 피해 없도록 노력 바란다. 마무리 각오 조합도 돼 있다. 하지만 합의 수준 못 이르면 해를 넘길 각오도 있다”며 올해 ‘협약서’ 요구의 특성상 기존 합의의 후퇴는 불가하지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9시간은 각 사 현황을 고려해 시행 방법과 시기를 합의하는 수준으로 열어두는 정도라면 의견일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8년 집단교섭 합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사업장별 시행시기를 별도 명시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시행을 합의한 전례가 있다.

사측, 축소교섭 제안

5차 제시안(다음 페이지 참조)에서 임금은 신한 발브가 첫 제시안을 냈고, 말레동현과 에스제이엠이 지난 교섭보다 약간 상향한 추가 안을 제시했다. 집단교섭 협약서에 관해서 사측은 지난 10차 교섭에서 후발 4사 수용불가 4항을 제시했는데, 5차 제시안에서 이를 ‘별도 제시’로 고쳤다. 그리고 축소교섭을 제안했다. 이규선 지부장은 “기존 4개항에 대한 입장은? 대부분 정리하고 209의 시기·방법 논의하겠는가?” 물었고, 사측은 “그렇다”며 “짧은 교섭이 될 것”이라고 해 어느 정도 결단한 듯한 입장을 보였다.

의견접근 불발

축소교섭에서 사측은 수용불가 4조항 중 지부 총회, 조합원 징계·해고 금지 조항은 수용하겠으나 209시간과 조합활동 시 재해보장은 마지막까지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2차례 정회와 사측 논의시간을 가졌지만 209시간의 경우 일부 사업장은 ‘논의를 시작한다’는 정도의 합의가 현재로서 최선의 안이라고 했다. 지부는 “쟁점 해당 사업장에 계획된 투쟁을 배치하고 투쟁으로 의견일치를 끌어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차기에는 임금 안 또한 의견일치에 이를 정도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교섭을 마무리했다.

차기 교섭은 8.21(목) 14시 대원산업 평택공장에서 열린다.

8.20 2시간, 8.27 4시간 파업

휴가 이후부터 교섭을 진전하기 위한 투쟁 논의가 진행됐다. 8.11(월) 운영위원회에서는 8.20(수) 사업장별 2시간 파업, 차기에도 교섭 진전이 없으면 8.27(수) 4시간 파업과 지부 결의대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오늘 교섭 후 회의를 통해 위의 운영위 결정대로 추진하되, 결의대회는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동양피스톤, 대한솔루션 등 쟁점 사업장에서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축소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교섭위원들은 대한솔루션 현장을 순회하며 땀흘려 일하는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2025년 경기지부 집단교섭 제시안(5차)

금속사용자협의회 경기지역 관계사용자는 2025년 금속노조 통일요구안 및 지부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I. 지부 요구

1. 임금인상

회사명	금액	회사명	금액
제양전기	추후 제시	대원산업	월 기본급 30,000원
말레동현필터	월 기본급 25,000원	디와이피	추후 제시
대한솔루션	월 기본급 12,000원	신한발브공업	월 기본급 10,000원
에스제이엠	월 기본급 30,000원	모베이스전자	추후 제시
우창정기	월 기본급 15,000원	현대캐피코	추후 제시

2. 화재발생 대비 : 원안 수용

- ① 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수립한 피난계획을 노동조합에 제공한다.
- ② 회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실시한다.
- ③ 회사는 화재로 인한 위험상황 발생시 즉시 노동자를 대피시킨다.

3. 경기지부 집단교섭 협약

- 별도제시

II. 통일 요구

1. 작업중지권 : 중앙협약에 따른다.

- ① 회사 내 노동자(사내하청 포함)는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불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한 노동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불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작업 중지 및 대피 조치를 한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③ 조합은 1,2항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남용하지 않는다.
- ④ 1,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발생하여 안전·보건상 개선 조치가 필요할 때, 회사는 개선 조치 이행 후 조합에 알려 확인토록 한 뒤 작업을 재개한다.

- ⑤ 회사는 1,2항에 따른 작업 중지·대피를 이유로 징계, 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고소·고발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단, 작업중지권을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남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⑥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에 대해 작업중지권 제도의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III. 중앙교섭 요구

1. 기후위기 대응 : 중앙협약에 따른다.

- ① 회사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 진행한다.
- ② 회사는 협력사 지원 정책 마련, 협력사 선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회사는 1항, 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실태와 저감 계획 집행 현황을 조합에 공유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아래 각항에 대해 기존 노사협의기구에서 안전으로 상정하여 연 1회 진행한다. 단, 기후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조합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응해야 한다.
 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및 계획의 점검·보완
 2.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
 3. 탄소중립 환경 구축으로 초래되는 노동조건 변화 대응책 마련
 4.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환경변화로부터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2. 금속산업 최저임금 : 중앙협약에 따른다.

-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420원과 월 통상임금 2,354,92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 ②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2025년 8월 7일

금속사용자협의회 경기지역 관계사용자 대표